

‘화장품계 덮죽덮죽?’... 올가휴 vs 김우리샵 결국 소송전

올가휴 아로마오일 표절 주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 고소

김우리샵-제조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맞대응’
“전혀 다른 제품, 이미지 타격 커”



논란이 된 올가휴(왼쪽)와 김우리샵의 제품

유명 스타일리스트 겸 방송인 김우리가 중소기업 업체 화장품을 무단 도용, 판매했다는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번질 태세다.

중소 화장품 브랜드 올가휴는 지난 20일 자사의 천연 아로마오일 제품(아로마틱 로제 팜프)을 무단 도용 및 판매했다며 김우리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김우리가 운영하는 김우리샵은 올가휴를 명예훼손과 문서 조작 혐의로 고소한다고 맞받아쳤다.

김우리샵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 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올가휴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올가휴의 법률대리인 변승국 변호사는 “지금까지 파악한 사실 관계 및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김우리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외 혐의로 고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올가휴가 제기한 혐의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우리샵 측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된 두 제품의 제조원인 이노맥스 측은 “해당 제품을 ‘기능성 오일’ 이라기 보단 ‘향수’로써 제작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제품의 주요 특징이 되는 향의 종류를 바꿨으니 불법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노맥스는 성분 한두 가지와 성분 표기 순서만을 바꿔 교묘하게 다른 제품이 것처럼 눈속임 했다는 올가휴의

입장에 대해 전혀 다른 제품(로타니카 힐링 오일)으로 만들어 코트리 측에 제공한 일밖에 없다며 일축했다. 코트리는 판매사인 김우리샵에 제품을 제공한 업체다.

또한 이노맥스가 지난주 올가휴에 전달했던 사과문에 대해서는 “로제 팜프를 타깃으로 동일한 콘셉트로 카피 제품을 생산”했다는 문장의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번복했다. 사과문을 쓴 고재일 이노맥스 영업이사는 “제품을 계약하고 개발하다보면 항상 어떤 타깃을 두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를 두고 표절했다고 표현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고씨는 자신은 이노맥스의 대표가 아니라며 사실상 사과문의 효력이 없다고 괴력했다. 올가휴는 고씨가 이노맥스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해당

제품의 거래를 주도한 관리자라고 주장했다.

김우리샵은 “브랜드사인 코트리가 문제 제품을 제안해 김씨가 디렉터로서 아이디어를 덧붙인 것뿐 (제품을) 먼저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바 없다”면서 “제품 판매를 통해 일정 부분 수수료만 받고 있어 큰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올가휴가 작은 회사인데 피해를 입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며 오히려 김씨에게 이미지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자료를 수집 중이며 법정에서 모든걸 밝히겠다”고 말했다.

두 회사 간의 법적 공방으로 치달은 이 사건은 올가휴가 화장품계의 ‘덮죽덮죽’ 사태를 호소한다며 기자들에게 김씨를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특별한날, 연말엔 나만의 파티룸서 호캉스” 셀럽샵 에디션, 프리미엄 소재 코트 강화

롯데호텔월드 ‘파티 온 마이 온’
파티용품, 와인, 꽃배송 패키지

롯데호텔 월드가 기념일에 파티룸을 꾸미고 ‘추억 소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파티 온 마이 온(Party On My Own)’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12월 31일까지 판매하는 이 패키지는 자신만의 파티룸에서 특별한날을 축하하고픈 이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이다. 집 이외의 장소에서 기념일을 축하하기가 망설여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 안심하고 파티를 즐길 장소를 마련할 수 있다.

이번 패키지의 가장 큰 장점은 한번의 예약만으로 파티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파티용품선과 아크릴 펜, 그리고 파티에 빠질 수 없는 와인과 치즈도 특전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추억의 순간을 남겨줄 즉석 사진기도 필름과 함께 무료로 대여할 수 있어 파티 준비가 간편해진다.

특히 시그니처서비스로 선보이는 꽃다발 배송 서비스가 이색적이다. 그간



롯데호텔 월드의 기념일 위한 ‘파티 온 마이 온’ 패키지 참고사진. /롯데호텔

호텔업계에서 객실로 꽃다발을 전달하는 상품을 흔히 선보여 온 것과는 달리, 롯데호텔 월드는 업계 최초로 투숙을 마친 고객이 지정한 장소로 꽃다발을 전달해주는 ‘추억 소환 서비스’를 도입했다.

롯데호텔 월드 관계자는 “파티가 끝난 후의 일상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행복의 여운으로 로맨틱한 기념일의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향후 더 다양한 방식의 추억 소환 서비스로 호텔 안팎을 가리지 않고

고객 감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상기 모든 혜택과 더불어 디렉스룸 1박과 2인 조식까지 포함된 파티 온 마이 온 패키지는 23만원(세금 및 봉사료 별도 가격)부터 예약 가능하다. 3단 카나페와 사진 인화 등의 서비스도 유료로 추가할 수 있다. 패키지는 체크인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예약하면 된다.

패키지 이용 시 지정된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인증 사진을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라세스 식사권 2매도 증정한다. /원은미 기자

CJ ENM 오쇼핑 ‘캐시미어 100%’

CJ ENM 오쇼핑부문의 자체 패션 브랜드 ‘셀럽샵 에디션’이 올 겨울 프리미엄 소재의 코트 판매를 강화한다. 이태리 유명 원단 회사의 고급 소재를 사용했고, 100만원 넘는 가격의 고가 상품도 선보인다.

대표 제품은 캐시미어 100% 소재의 프리미엄 코트다. 유럽 내 텍스타일 개발과 제조 선두 기업인 이태리 ‘콜롬보(COLOMBO)’사의 캐시미어 원단을 사용했다. 이 회사는 연간 약 30만 미터 이상의 캐시미어 원단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업체로, 캐시미어 외에도 비큐나, 밍크 등의 최고급 의류 원단을 제조하고 있다. 옷의 원단 수급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모두 이태리에서 진행한 100% 메이드 인 이태리(made in Italy) 직수입 상품이다. 오쇼핑부문은 셀럽샵 에디션의 이 프리미엄 코트를 120만원 대에 판매할 예정이다. 상품은 CJ 오쇼핑을 통해 10월 말 론칭한다.

이태리산 원단을 사용한 테디베어 코



콜롬보 캐시미어 코트

트도 선보인다. 일명 ‘뽀글이’로 불리는 모 혼방 소재의 옷으로, 테디베어처럼 털이 복슬복슬하고 부드럽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특히 이 코트는 테디베어 원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는 이태리 ‘메이플(MAPLE)’사의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난 장점을 갖췄다. 완제품 생산까지 모두 이태리에서 진행한 후 한국에 들여왔다. 힙을 덮는 길이의 하프 코트 스타일이며, 카멜, 그레이, 핑크, 블루 등 발랄하고 귀여운 색상 위주로 기획됐다. 가격은 60만원 대로, 11월 초 출시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뭉툭고양이
가을 신상 ‘자수 토트백’

엔캣의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 ‘뭉툭고양이’가 가을 날씨에 어울리는 ‘자수 토트백(사진)’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 자수 토트백은 스타일과 실용성을 겸비한 아이템으로 그린, 네이비, 브라운, 그레이, 블랙 등 총 5개의 컬러로 구성돼 있다. 다운톤 된 색감으로 어느 코디나 매치하기 좋으며, 전체적으로 단순한 디자인에 꽃무늬 포인트를 쥘 스타일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원은미 기자

남양유업, 소아과 선생님과 ‘육아 토크쇼’

30일 인스타그램 IGTV서 진행

남양유업이 오는 30일 인스타그램 IGTV 방송을 통해, 엄마들이 육아를 하면서 생기는 소아과 관련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한 ‘랜선 임신육아교실’ 소아과편을 진행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두근두근 랜선 임신육아교실’에서는 세란병원, 올리비움 산후조리원의 조연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출연해, 아이 건강에 관련한 내용을 전달해 줄 계획이다. 임신육아교실 MC 개그맨 한상규와 소아과 전문의의 토크쇼를 통해, 영아산통 및 황달 등 아기가 아파 소아과를 방문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엄마들의 궁금한 점들을 해소해 줄 예정이다.

본 방송 이후 당일 3시 15분부터는 남양 ‘임신육아교실’ 인스타그램 계정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전 신청 회원들 중 라이브 방송 참여자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진행한다. 경품으로는 카시트, 조이비 놀이 텐트, 젓병 소독기, 베베슈물티슈, INB 젓병, 남양유업 콤포트케어, 남양유업 맛있는 두유 등 각종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이 준비가 되어 있다. 경품 추첨을 위한 사전 신청은 21일부터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남양아이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랜선 임신육아교실은 외출이 어려운 가운데 누구나 집에서 모바일로 간편하고 편하게 육아교실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디딤, 중식 주점 프랜차이즈사업 공동진행

오가푸드와 ‘츠츠허허’ 운영 맞손

외식 기업 디딤과 주식회사 오가푸드의 중식 주점 브랜드 ‘츠츠허허’가 프랜차이즈 공동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급스러운 중화요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술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츠츠허허’의 프랜차이즈 확대를 위해 양사가 힘을 합치자는 의견에 따라 진행됐다.

디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츠츠허허는 지난 2018년에 오픈해 현재 수도권에 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디딤은 업무협약에 따라 츠츠허허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주점 프랜차이즈 미술관, 레드문 등 다양한 외식 브랜드 운영에 대한 경험



오가푸드 오충현 대표(왼쪽)와 디딤 이범택 대표가 프랜차이즈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 노하우를 공유할 방침이다.

츠츠허허도 추후 수도권을 넘어 전국 매장 확대 및 브랜드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디딤이 최적의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